

별첨2. 제3회 노회찬상 선정이유와 수상소감

1. 제3회 노회찬상 : 라이더유니온

선정 이유	<p>2019년 5월 1일 노동절, 50여명의 라이더들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오토바이 행진을 벌이며 세상에 그 존재를 알린 라이더유니온은 우리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조차 못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에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노회찬 정신과 맞닿아 있는 조직입니다.</p> <p>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감염 상황 속에서 이 땅 곳곳을 달리는 배달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K-방역’은 그에 앞서 우리 사회가 일찍이 ‘배달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플랫폼에 묶인 채 분초를 다투며 죽음의 질주를 하는 라이더들이 ‘지옥’과 같은 노동조건을 감내한 덕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p> <p>초 단위로 분절되는 플랫폼노동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고립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뭉치면 바깥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플랫폼노동자의 집단적 힘을 만들어낸 것은 실로 놀라운 성과였습니다.</p> <p>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 비정규직 문제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합니다. 라이더들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고 현행 법률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대표적 존재입니다.</p> <p>라이더유니온은 그동안 이슈파이팅·캠페인 등 사회운동과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동조합의 운동방식을 결합한 ‘사회운동 노조’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의 현장에 항상 라이더유니온이 있었습니다.</p> <p>최근에는 새롭게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인공지능(AI)의 ‘알고리즘’과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더유니온은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아스팔트를 녹이는 ‘폭염’뿐만 아니라 냉동창고보다 더 낮은 기온의 ‘혹한’에서 노동해야 하는 라이더에게 ‘기후 위기’ 역시 자신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10만 라이더 서명운동”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해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바 시대의 변화에 조용하는 사회운동 조직으로서 앞으로 보여 줄 모습에도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라이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야 한다는 고전적 휴머니즘의 차원만이 아니라 라이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곧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으로 제 3회 노회찬상 본상을 라이더유니온에게 수여합니다.</p>
----------	--

수상 소감	<p>노회찬상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가 수상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의 생애처럼 우리사회 수많은 '투명인간'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이더유니온 전 조합원들과 함께 노회찬 의원님의 격려와 응원의 뜻, 깊이 간직하겠습니다.</p> <p>라이더유니온은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처럼 “구부러진 막대를 펴기 위해 반대편으로 더 구부려야 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를 고용하는 플랫폼기업들은 업무배정보수평가계약해지 등 노동조건 전반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맘대로 바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업무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건지 알 수 없고, 당장 오늘 수입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혹시 내가 밭보여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을 안고 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우리를 노동자가 아닌 파트너라 부르고, 정부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 쪽으로 구부러진 막대는 언제 부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플랫폼 상에 숫자로만 존재하던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뭉쳐 라이더유니온을 결성한 이유입니다.</p> <p>조금 막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은 수십 만 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한 상태이고, 알고리즘 뒤에 숨어 노동자를 통제합니다. 전국 방방 곳곳이 일터인 터라 동료들을 만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올 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은 무성하고 주변에선 지친 활동가들도 보이는 형편입니다. 이 와중에 노회찬상 수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일을 더 치열하게 펼쳐갈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	---

2) 제3회 노회찬상 특별상 : 다큐영화 <너에게 가는 길>

선정 이유	<p>남의 일로만 여기던 일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도 닥칩니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 직장인으로 살아온 두 어머니가 각자 자식으로부터 성소수자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혹감에서 헤어나지 못하지만, 결국 각자 자식의 실존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름 아닌 자신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너에게 가는 길’은 사회적 고립 상황에 처한 성소수자의 생존투쟁 뿐 아니라, 성소수자 포용이, 혈연적 유대를 넘어 어떻게 사회적 연대로 확장하고 발전해 나가는지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두 어머니가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혐오와 차별로 가득 찬 세상을 바꾸는 행진에 동참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자식’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거듭나는 ‘너에게 가는 길’의 서사는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이한열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이야기를 닮았습니다. 아배 여사 이야기를 통해 20세기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성소수자 부모 이야기를 통해 소수자 인권보장이라는, 21세기 민주화</p>
-------	---

	<p>가 얼마나 힘겹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p> <p>요즘 한국 사회 한편에서 미투(Me-Too) 운동을 계기로 성 평등 요구가 분출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는 소수자 권리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혐오 표현을 막는다며 정부·대통령 풍자는 차단하면서 소수자 혐오와 차별은 방치하는 모순적인 정부가 존재합니다. 한창 전개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젠더 갈등을 부추겨 표를 모으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이를 짐짓 모른 체 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p> <p>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세계 5대 강국, 국민소득 5만 달러를 공약하면서도 열악한 소수자 인 권은 외면하는 현실에서 ‘너에게 가는 길’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소수자를 향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너에게 가는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동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라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너에게 가는 길’은 우리에게 차분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광야를 불사르듯, 이 다큐멘터리가 시민적 각성에 불을 댕길 수 있습니다. 소수자·젠더 문제가 정치 지도자 사이에서 여전히 왜곡된 채 소비되는 현실에서 ‘너에게 가는 길’이 기여하는 바가 특별한 이유입니다.</p>
수상 소감	<p>안녕하세요.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제3회 노회찬상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영화 <너에게 가는 길>이 노회찬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너에게 가는 길>팀을 대표해 이 수상소감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p> <p>연분홍치마가 제작하고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제작협력한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은 성소수자부모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맞이한 두 엄마의 성장서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시작하고자 했을 때, 함께 연대한 두 단체는 이 영화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관객분들이 알아주셨기에, 배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을 염원하는 시민사회 관객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배급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 <p>그래서 이 상을 주시는 이유는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을 지지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영화의 의미를 알고, 함께 힘을 모아 영화를 열렬히 응원해주고 있는 시민 관객분들의 마음에 지지를 보내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기에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p> <p>고 노회찬 의원님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에서 장혜영의원이 다시 대표발의 했으나, 여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평등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한 변화의 첫 걸음으로 차별금지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제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더 열심히 함께 하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도 오늘의 지지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작품을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3) 제3회 노회찬상 특별상 : <비정규노동자 쉼터, 꿀잠>

<p>선정 이유</p>	<p>'꿀잠'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들의 쉼터로 시민들의 모금과 재능 연대를 통해 2017년 세워졌습니다. '장기투쟁으로 지친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가 마음 편하게 쉬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2015년 8월 처음 제안되어 2천여명의 시민이 모금에 참여했고 공간의 철거부터 수리, 인테리어까지 천여명의 시민들이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문정현 신부, 별세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후원 전시를 열어 건립비를 마련해 보태기도 했습니다.</p> <p>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들은 사전 예약만 하면 꿀잠에서 무료로 숙박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꿀잠'은 단순한 쉼터 그 이상으로 노동역사기행과 법률 강좌가 있는 문화교육 공간입니다. 정기적으로 심리치유사분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치과치료, 한방치료도 진행하는 치료와 치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p> <p>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투쟁 사업장, 비정규 투쟁에 연대하는 인권 사회단체 활동가, 문화예술 노동자들 중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서울에 와서 휴식과 치유를 얻고 가는 공간이 바로 꿀잠입니다. 장애인 운동이든 기후정의 운동이든, 약자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는 이들을 뒤에서 조용히 보듬고 돕는 공간입니다.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 발언, 대중이 반기지 않는 운동에 연루된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이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공간입니다.</p> <p>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아들을 잃은 후 '꿀잠'에서 머물면서 "국가가 버린 이들을 보듬던 곳이 꿀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했던 이들이 이곳에서는 소중하고 존중받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는 환대의 공간입니다.</p> <p>약한자, 소외된 이들의 쉼터였던 '꿀잠'이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꿀잠이 위치한 신길2구역은 2009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고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다가 최근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꿀잠을 지키기 위해 많은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p> <p>매년 4천명이 다녀가는 쉼터, 천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낡은 건물을 고치고 수선하는데 힘을 보태고, 구석마다 사연과 역사가 쌓인 '공공재 꿀잠'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염원합니다. 각 지역에서 조용히 '꿀잠'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응원하며, 더 많은 꿀잠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p>
<p>수상 소감</p>	<p>며칠 전, 도심 거리농성장에 설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한화생명설계사, 세종호텔 정리해고노동자, 아시아나케이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설을 맞이하는 마음 한 구석이 쓸쓸할 터임에도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p>

꿀잠은 2018년부터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하고 농성장에서 지내야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거리의 차례상을 마련해 왔습니다. 꿀잠은 투쟁하는 노동자, 사회활동가들이 잠자고, 밥 먹고, 빨래하는 세탁기의 기능 외에도 교육과 물품지원, 간식나눔, 집회지원 등의 투쟁 지원 외에도 여러 투쟁 공대위에 참여하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의 호흡을 함께 해 왔습니다.

실제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을 만든 주체는 기륭전자비정규직 투쟁을 해왔던 당사자를 비롯해 5년 10년 함께 싸웠던 비정규직노동자와 정리해고투쟁 노동자, 그들과 함께 연대해 왔던 사람들이며, 사회적 연대의 결과물로 꿀잠은 태어났습니다.

꿀잠은 연대 활동을 단지 도우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승리가, 노동해방이 우리 모두의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멕시코 치아파스의 원주민 여성의 말과 상통합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연대임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노회찬 재단에서 꿀잠에 특별상을 주는 것은 코로나19로 집회조차 힘든 탄압 속에서도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이자, 꿀잠이 지향하는 연대의 가치를 드높이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꿀잠이 최근 재개발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조금 더 힘내 곳곳이 자리를 지키라는 응원이라고 여겨집니다. 꿀잠의 활동을 공감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겠습니다.